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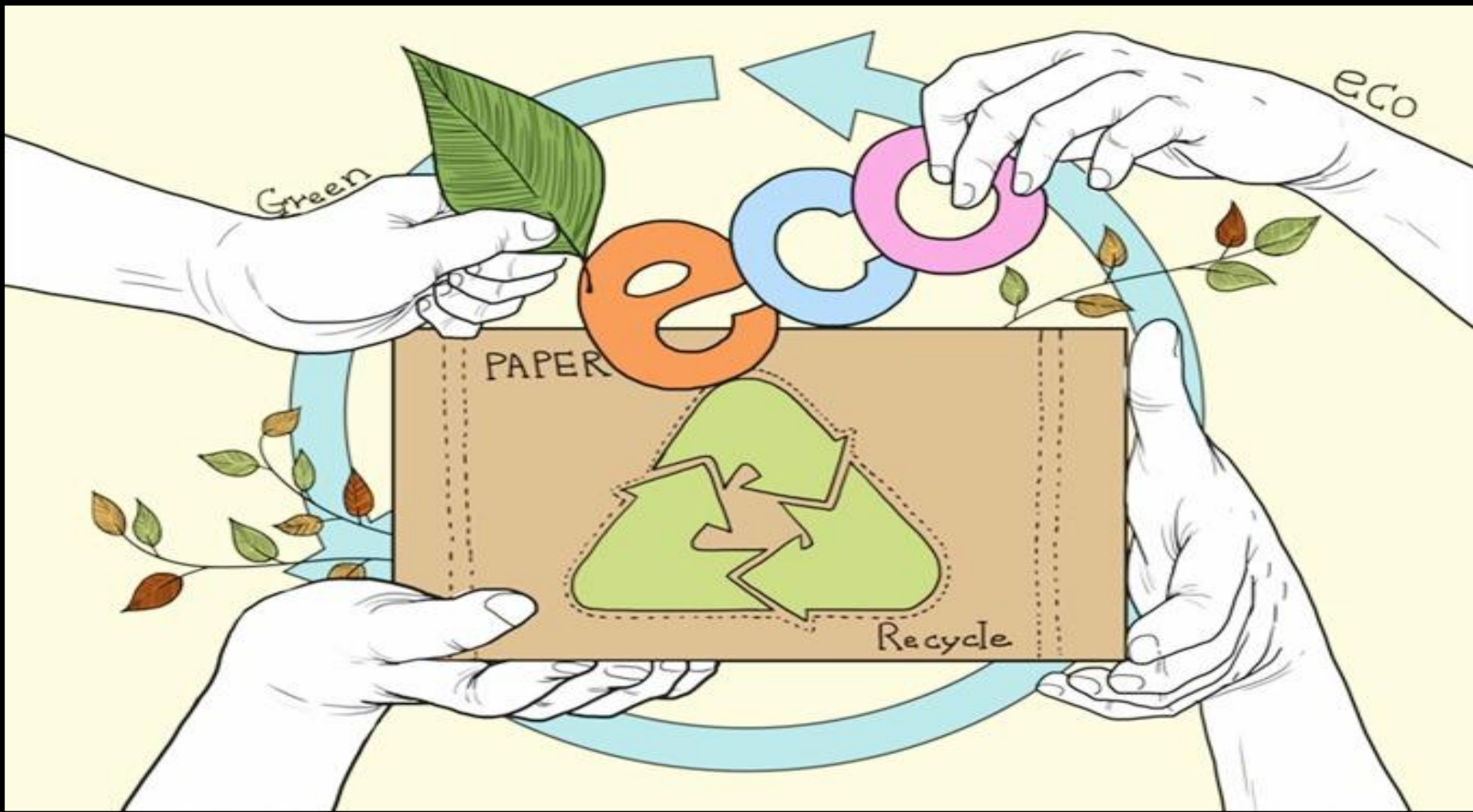
티오티

무빙스쿨 보고서



업사이클링이란?

기준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단어 업사이클링!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업사이클링 과정을 보면서 그 주체가 물건과 상품, 제품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재해석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듯이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삶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지, 어떤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희 스스로 내면에서 업사이클링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보는 것을 주제로 잡고 우리의 무빙스쿨은 START!



다름 팀과는 달리,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인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태국팀.. 고민 끝에 인천으로 방향을 잡고 31번 버스에 탑승!
무사히 버스를 타서, 구파발 역으로 향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진 찍자마자 꿈나라.. 이러다가 종점까지 가는 건 아닌지..



다행히 구파발 역에 도착! 환승을 하면 좋겠지만, 이번 무빙스쿨은 지갑과 휴대폰을 쓰지 않으면서 자발적 불편을 체험해 보는 것이 목표이기에 환승은 NO! 쿨하게 결제를 하고 지하철에 줄줄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면서 단체 사진도 찰칵! 그런데... 인천은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2시간 조금 넘게 달려와 드디어 인천 인하대학교에 도착!
그리고는 바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겸,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인하대 학생식당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1인당 1만 5천 원씩으로 12기에 비해서 무려 3천원이나 인상된 금액!!
하지만 저희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2천 원짜리 만두라면
3개를 선택 합니다.



이렇게 배를 빵빵 하게 채운 후 처음 인터뷰 하게 된 분은, SSORY 라는 업사이클링 업체의 최환 대표님. 쓰레기를 잘 가지고 놀고 싶다는 말을 시작으로, 최환대표님의 소개를 듣고 난 후 우리 라온아띠와, 무빙스쿨에 관해서 설명 드린 뒤 인터뷰 시작!

맨 처음 물어 본 것은 “SSORRY” 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알파벳 하나하나 마다 의미가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그 나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에코 백을 많이 만들어서 에티오피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지만, 얼마 후 그 마을 주변에서 가방을 만드는 주민이 와서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가방 만드는 일 뿐인데, 이렇게 가방을 많이 나눠주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눈물을 흘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 미안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 이름을 SSORRY라고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에 관한 주제로 시작하였으나, 청년들에게 닥친 현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의 길만을 바라보고 그 길로만 가고 있다는 점. 자신의 관심분야와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이야기를 주로 하시고, 무섭겠지만 일단 생각은 그 쪽 하고 행동해 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최환 대표님.

인터뷰를 진행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로 “봉사와 비즈니스의 관계” 어떻게 보면 봉사는, 전쟁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해주던 식량원조와 같이 갑과 을의 관계로 이루어 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비즈니스 관계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도와주며 성장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 해주시며,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질문지 보다, 훨씬 더 많은 답변을 해주시고 어쩌면 이제 태국에 가서 많은 일을 겪게 될 우리에게, 그들과 비즈니스적 관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친구가 되고 오라는 최환 대표님의 말씀을 끝으로 첫 번째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마무리는 다 같이 모여서 단체사진!



이렇게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뷰를 진행 하다 보니 어느 세, 1시 55분.. 2시 22분에 급행을 놓칠 것 같아 좌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뜻 차로 역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최환 대표님. 대표님 덕분에 제시간에 맞춰서 급행열차를 탄 태국 팀은, 이제 다음 목적지인 리브리스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출발!!



팀원들 모두 처음 와보는 문래동, 이곳은 이때까지 우리가 거쳐 왔던 곳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길거리 이곳 저곳에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이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목적지인 “수다” 카페에 도착!!

가면서 우리는 이곳 문래동이 예술 촌과 철공소로 유명한 곳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래동 카페의 안락한 분위기에 취해 갈 때 쯤, 입구의 문이 열리더니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한 분. 바로 리브리스의 장민수 대표님! 간단한 인터뷰라고 편하게 오셔도 된다고 말씀 드렸지만, 업사이클링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저희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 오신 대표님!



이렇게 우리의 두 번째 인터뷰는 대표님이 가져오신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 물품을 보면서 시작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물건은 바로 스탠드 형 램프. 버려진 자전거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 소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니..

이렇게 만드시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 보았습니다.

업사이클링 하시는 제품들이 주로 인테리어 위주라서, 대표님의 전공은 디자인이 나, 미술 쪽인 줄 알았지만, 사실 대표님의 전공은 기계공학!
평상시에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형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창업도 재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외국의 폐 자전거를 활용한 제품이 나온 잡지를 보고 영감을 얻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업사이클링에 관한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키워드는 우리가 평상시 고민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 꿈,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한 가지.

시도를 해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보강해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얼른 시도해봐라.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주위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시도해봐라! 라는 말씀을 끝으로 리브리스와의 즐거운 인터뷰 또한 끝이 났습니다.

리브리스는 도심에 방치되고 버려진 자전거의 부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업을 통해 디자인 소품을 만듭니다.

REBRIS

BICYCLE X UPCYCLING

 www.rebrisworks.com

 facebook.com/rebrisworks

 [#rebrisworks](https://www.instagram.com/rebrisworks)

 blog.naver.com/rebris

 070-7517-7003

인터뷰를 하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물건을 너무 탐냈던 걸까요, 대표님이 “이 램프는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만든 열쇠고리는 하나씩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 하시며 선뜻 작업장으로 안내해주시는 대표님을 따라서, 도착한 작업 공간! 주로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지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니 더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작업장을 둘러보면서 각자 하나씩 기념품을 받은 후 단체사진!



비록 꼴찌로 연수원에 도착하긴 했지만, 뜻 깊었던 무빙스쿨!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대표님들의 마지막 메시지.

TO.라온아띠들에게

저도 청년인데... 이런 말 하기는 좀 쑥스럽네요... 하하

하시는 활동들은 지원하셔서 들어가신 거죠?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생각들이 깨어있으신 분들 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런 활동들을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하세요.

시도를 해 봐야 무엇이 잘못이고, 문제인지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첫 시작이 시작되는 거구요.

시도를 하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은 20대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도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해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시도를 하세요.

그리고 행동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걱정했던 것들은 사실 걱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Thank
You

RaonAtti